

9/18/16

설교 제목: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고린도전서 3:16,17

(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하면 우리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슬픈 이스라엘 역사와 운명을 함께 하면서 세번에 걸쳐 건축되었다가 파괴되어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터에는 무슬림 사원 '오마르 모스크'가 황금빛을 발하며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때가 되면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한 사람의 이름을 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등으로 불립니다.

솔로몬 성전은 BC 959 년 솔로몬 왕에 의해 건축(왕상 6:1-38)되었다가 BC586 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제 3 차 예루살렘 침공 때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파괴 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재건했습니다.

BC538 년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령을 내리면서 3 차에 걸친 이스라엘 포로들의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 집니다.

1 차 귀환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2 차 귀환은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3 차 귀환은 왕의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의 영도 하에 이루어 지는데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켰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여 BC516 년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헤롯 성전은 이방 이두매(Idumea) 출신인 헤롯왕이 유대인에 대한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건설해 준 것입니다.

BC 20 년에 착공하여 AD63 년에 완성되었으니 약 80 년이 넘게 걸쳐 세워진 것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은 완공된지 불과 수 년 후인 AD 70 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성전에 있던 금들이 화재로 녹아 돌 사이에 스며든 것까지 캐내기 위해 성전 돌들을 모두 다 뽑았다고 합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 24: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마 24: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지라도 성전의 바깥 벽 중 일부 약 450m 정도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통곡의 벽(The Wailing Wall)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곳에 순례차 와서 소원이 적힌 쪽지를 벽의 돌 틈새에 끼워 넣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며 유대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제 3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전'하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인 예배당 또는 교회 건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은 생각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전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또는 믿음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출 40: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의 성막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천막,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텐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성막이 최고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그 성막 성전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후 광야에서 장막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도 장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이 만드신
초라한 장막에 거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살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장막에
계셨습니다.

이를 민망히 여긴 다윗이 자신의 궁전을 건축한 후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치 않다고 하시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성막과 똑같은 개념을 가진 성전을 건축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과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2: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 2: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요 2: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요 2: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된 것에 분노하시며 성전에서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시고 돈바꾸는 자들의 상을 엮으셨습니다.

비둘기파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을 깨끗이 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 2: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2: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을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문습니다.

(요 2: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기서 46 년을 지었다고 말하지만 이때까지도 헤롯 성전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계속 지어져 AD63 년이 되어서야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 뿐아니라 제자들도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 2: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2: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헤롯 성전을
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며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사람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백악관과 청와대가 왜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이 멋있어서요?

그만한 건물은 미국과 한국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백악관과 청와대에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성전의 성전됨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땅에 오신 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계시실 필요가 없으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요 2: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 그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성전을 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지 3 일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당신의 몸,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 놓아도 그것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전 6: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된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히 13: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 13: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 13:3)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 13:4)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 13: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성전됨이 드러나도록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만천하에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이제 성전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성전 건축을 예배당을 크고 아름답게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성전 건축은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사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엡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엡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이지만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계속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